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

황화석** · 이철우***

The Evaluation on the Governance of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Hwang, Hwa Seok** · Lee, Chul Woo***

요약: 본 연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평가는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의 4가지 요소별로 거버넌스 주체 상호간 교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는 축제 주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2011년 현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상공인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각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소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강한 주체는 축제를 주도적으로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참여한 주체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사회적 정당성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주체의 참여 보장, 신뢰성에 있어서는 주체의 능력과 인지 및 제도적 신뢰이었다. 전문성의 경우는 전문지식, 대안제시 능력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이었고, 투명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개 및 공유 보장이었다. 앞으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 간 그리고 주체와 일반시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지역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 교차평가,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the governance of th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The evaluation focuses on mutual cross-assessment of agents engaging in governance relating to four elements: social justification, reliability, professionalism and transparency. Governance based on co-operative partnership was the essential factor leading to the mask festival's success. Governance of th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in 2011 was privately initiated governance having horizontal and open partnership among festival specialis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gional business organizations, volunteers and local government, with the Andong Festival Tourism Foundation as the central figure. Three of governance elements were successfully carried through; the exception was transparency. The agents who gave more positive evaluations were those who played leading roles in planning and conducting events, as well as in assessing those events. The reasons for positively assessing the elements are the significance of the festival and the guarantee of agents' participation in social justification; the ability of agents, as well as cognitional and institutional trust in reliability; expert knowledge, capacity to suggest alternatives and duality of business in professionalism; and effective communication, the guarantee of opening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 transparenc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the system for allowing passive agents to contribute usefully should be strengthened. Mutual communic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agents, as well as between agents and residents, also should be more strongly reinforced.

Key Words: local festival,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governance, mutual cross-assessment, privately initiated governance

1. 머리말

오늘날 우리사회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소위 세방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지

역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이경민·이철우, 2007). 특히 최근에는 지역산업정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문화산업으로 선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광지 개발보다는 지역의 고유한 장소

* 본 연구는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Ph. D. candidate. Dep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hs2129@daum.net)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wlee@knu.ac.kr)

적 자산을 활용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문화산업의 정책적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지역축제이다(조안나, 2010). 실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는 지역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도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지역축제가 지역의 독특한 장소자산(place asset)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지역축제의 증가로 시기, 소재나 프로그램상의 중복, 예산낭비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축제가 축제의 본질적 가치의 실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창환 등, 2006). 더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추진 주체가 공공이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사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교통 혼잡, 주민과 관광객과의 마찰, 갈등 등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여영숙, 2009). 그 결과 지역문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복잡한 사회적 갈등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왔다(이경민·이철우, 2007; 권정주 등, 2011; 김정렬, 1999; 김홍수, 2007; 민보경, 2005; 유정우, 2008; 차미숙, 2008).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동시에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 간의 갈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거버넌스를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안동의 하회탈을 모티브로 하여 전통문화와 매우 잘 연계되어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추진체제에 있어서 초기의 지방정부 주도의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거버넌스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발전하였다. 즉 안동국제탈

춤페스티벌은 민간주도의 축제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관계를 이끌어낸,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주도 거버넌스의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주된 자료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외지관광객(292명)과 지역민(260명)을 포함한 지역축제참가자 552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축제의 추진주체인 조직위원회 12명을 비롯한 지방정부,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각 10명, 지역상공인단체 14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29명 등 총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지역축제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축제가 지역 주민 삶의 질과 지역주민간의 화합 그리고 지역 홍보 및 이미지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조사이고,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거버넌스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설문조사는 모두 2011년 10월 2일에서 9일에 걸쳐 8일간 실시하였다.

2. 지역축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동향

전통사회에 있어서 지역축제는 공동체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놀이문화의 일종이었다(함석중·박석희, 2009).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이외에 경제적, 관광적 그리고 문화 보존적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지역축제는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의 장으로서 문화의 공유와 교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문화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강형기, 1999; 이장주·박석희, 1999; 오순환, 1999).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화합(강형기, 1999)과 지역이미지의 제고 및 홍보로 관광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이장주·박석희, 1999; 오순환, 1999)함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축제의 의의가 강조되면서, 2010년 현재 전국에 걸쳐 823개의 축

제가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22개로 가장 많으며, 강원과 경기 93개, 충남 76개, 서울 69개, 전북 62개 등의 순이다(문화관광체육부, 2010). 그러나 이들 축제는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축제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축제의 증가와 더불어 축제에 대한 연구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왔다.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장소마케팅 연구(황윤용, 2005, 이장주·강경훈, 2003; 안혜원, 류상일, 2008), 지역축제 특성 연구(이경모·강해상, 2003), 축제 참가자의 만족도 연구(장병수·구정대, 2004; 신현식·김창수, 2011; 이수범·전유정, 2010; 함석중·박선희, 2009),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문태현, 2005; 조안나, 2010; 박종일, 2010; 김홍수, 2007) 그리고 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정강환, 1996; 장순희, 2001; 문태현, 2005; 박종일, 2010; 조안나, 2010; 김홍수, 2007)로 구분될 수 있다.

정강환(1996)은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축제의 정체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축제조직의 민간주도 상설기구로의 전환 그리고 기업 후원이나 협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장순희는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기획, 집행, 평가과정이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태현(2005)은 문화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십이 가장 주요하며, 객관적 평가 및 피드백,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종일(2010), 조안나(2010), 김홍수(2007)는 축제주체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적 의사결정과정인 축제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안나(2010)는 축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전략은 장소마케팅 전략과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며 축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는 점차 축제를 둘러싼 관련 주체 간의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문화특성과 지역성을 부각하거나 독특한 소재에 기반을 둔 지역축제일지라도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미 포화상태의 축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축제들은 과거 지방정부 주도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진 주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축제 추진주체들 간의 거버넌스가 축제의 핵심적 성공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지역축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동향과 연구과제

최근에는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영’, ‘국정관리’ 또는 ‘통치기제’, ‘통합 혹은 협력’ 그리고 ‘협치’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김정렬, 1999). 뿐만 아니라 그 개념도 학자에 따라 상이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Rhodes(1997)는 거버넌스란 통치(governing)의 새로운 과정 또는 질서화 된 규칙의 새로운 조건 그리고 사회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Stoker(1998)는 거버먼트의 변화된 의미로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상호 협력적 조정양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Johansson and Bjork(2001)는 과거처럼 관료들이 일방적,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정책 커뮤니티(policy community) 내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형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병수·김일태(2001)는 공사협력체계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이용연·염일열(2002)은 공사협력체계와 네트워크 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과거 정부중심의 강제와 통제, 계층제, 관료 중심적 통치에서 벗어나 ‘관련 주체들의 참여적이고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의사결정체제 및 그 운영방식’로 정의하고자 한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사회화에 따른 기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 그리고 시장의 실패 등의 원인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2000년

대에는 정치, 행정뿐 만 아니라 문화, 건강, 교육, 환경 등 사회의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결정과정과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매개체로서의 역할 등으로 그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김영 등, 2008a; 민보경, 2005).

초기의 거버넌스 연구는 행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정정길, 2003). 그러나 지방화시대의 진전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연구(이경민·이철우, 2007; 김영 등, 2008a; 이연호, 2010), 특히 지역 발전에 있어서 문화 및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문화(산업)정책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문화(산업)정책 거버넌스의 조직과 특성(조안나, 2010) 및 성공요인(박종일, 2010; 문태현, 2005)에 관한 연구와 거버넌스 평가(도경록 외, 2011; 김홍수, 2007; 김영 등, 2008b)에 관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의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가 중심이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거버넌스 구조와 그 특성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주체 상호간의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거버넌스 주체간의 상호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를 평가하고자 한다.

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발달과정과 의의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발달과정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주제로 안동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1997년 10월 1일에서 5일에 걸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발달과정은 크게 ① 태동기(~1999년), ② 기반구축기(2000~2005년) 그리고 ③ 정착기(2006년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태동기는 1992년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특히 1995년 직선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지

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의 정책대상으로 지역축제가 부각되었던 시대적 상황에 힘입어 지방정부와 소수의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축제 수준에서 기획하고 개최한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민 위주의 축제였으며, 축제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의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한 준비기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공연시간의 차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던 시기였다(가톨릭상지전문대학 지역사회개발연구소, 1997).

2000년 이후의 기반구축기에는 1999년 전국문화관광축제평가에서 2위를 차지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비와 도비를 각각 14억씩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면에서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관광객의 증가와 축제의 재정자립도 제고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당일 방문형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거리공연도 점차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물론 ‘탈과 춤’이라는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청소년 펌프공연, 락페스티벌 등 전체적으로 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정체성이 부각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안동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1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안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전국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01년에는 제3회 한국관광대상(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으로 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축제로 발전하였다.

더욱이 2006년 2월10일에는 (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추진 주체가 종전의 관주도에서 ‘민·관협력형’ 체제로 전환되는 등 본격적인 정착기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진 주체의 전환에 대해서 초기에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지방정부와 탈춤 및 축제 전문가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등 관련주체들이 원활한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이고 창의적 운영으로 세계수준의 지역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2007년 대회에는 축제의 일환으로 세계탈문화

예술연맹원(IMACO)의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지역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였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축제의 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부터 2010년에 걸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그리고 2011년에는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탈문화예술연맹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상과 같은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① 개최 시기를 매년 9월 마지막 금요일에 시작하여 10월 첫째 일요일까지 10일간으로 확정함으로써 세계수준으로 표준화(global standardization)하였으며, ② 축제장소도 종전의 하회마을에서 탈피하여 하회마을 외에 탈춤공원, 안동시내 일원 등 안동시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③ 축제의 내용도 탈춤행사 외 민속행사, 부대행사로 크게 확장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탈춤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탈춤행사로, 800년 전통의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중심으로 한국전통 탈춤 20개 단체와 창작탈춤, 세계 각국의 탈춤 등 국내외 40여 탈춤단체의 공연과 시민과 일반 관광객들도 함께 참가하는 탈춤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탈춤공원에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단위의 관광객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대행사로는 세계의 탈을 전시하는 ‘세계의 탈과 문화기획전’과 세계탈예술연맹(IMACO)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콘퍼런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2011년에는 세계 30개국 문화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 수준

의 지역축제로 발전하였다(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11).

2)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의의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지역축제의 의의로는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주민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지역 홍보 및 이미지의 제고를 들 수 있다(강형기, 1999; 이장주·박석희, 1999; 오순환,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그리고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주민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지역이미지의 제고에 대하여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는 2011년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방문객수는 총 1,075,452명(지역민 393,436명, 외지인 640,640명, 외국인 41,376명)으로 2010년에 비해 지역민은 105.7%, 외국인은 3.3% 증가한 반면에 외지인은 28.2%가 감소하였다. 이들 방문객 중 외지인의 1인 1일 평균지출액은 2010년 46,826원에서 2011년 55,710원으로 전년도에 2011년에 비해 15.9%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축제로 인한 지역 내 총 유입액은 24,798,674천원으로 2010년에 비해 2.6%가 증가하였다(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11).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문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록 증가율 자체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전 부문에 걸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 증가율에 있어서는 2008년 대비 2010년의 경우에는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2010년 대비

표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천원, 명, %)

구분	2008년	2010년(증감율)	2011년(증감율)
생산유발효과	33,792,522	34,433,386(1.9)	35,308,566(2.5)
부가가치유발효과	15,963,870	16,119,298(1.0)	16,293,366(1.1)
소득유발효과	12,925,601	13,158,969(1.8)	13,287,680(1.0)
취업유발효과	846	893(5.3)	904(1.2)
고용유발효과	370	385(3.9)	391(1.6)

* 자료: 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2011)의 자료를 기초로 필자 제작성

2011년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2010년의 경우, 외지방문객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들의 평균 지출액의 증가로 지역 내 총 유입액과 부문별 파급효과에 있어서도 전 부문에 걸쳐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10일 간의 단기간에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규모의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둘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지역주민의 화합에 대한 기여도는 축제 참가자 중에서 외지 관광객을 제외한 안동시 거주자(260명)만의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분석은 안동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 모두를 포함한 축제 참가자 전체(55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추진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축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오히려 주민화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여영숙, 2009). 그러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2011년 전체 축제 참가자 중에서 지역민의 비율은 37%로 2010년 17%에 크게 성장되었다(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11). 이와 같이 점차 지역민의 참가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본질적 가치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화합에 대한 기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주민의 화합에 미치는 기여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69.0%가 매우 혹은 대체로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7%에 지나지 않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주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셋째,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혹은 대체로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여 기여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자의 비율(4.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보통’과 ‘매우 기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25.9%와 22.6%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6%,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겨우 1.5%에 지나지 않는다(표 2). 결과적으로 안동시민들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한 지역주민 삶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홍보 및 이미지의 제고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지역축제가 지역 홍보 및 이미지의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축제의 홍보시스템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홍보 활동은 2010년 12월 1일에서 2011년 10월 9일에 걸쳐 축제신문의 발행, 팸플릿, 리플렛, 포스터, 축제종합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전국의 공공기관 및 관광안내소, 국내·외관광전, 박람회, 홍보행사에 참가하여 배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탈춤관광열차

표 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지역주민화합과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여도 (단위: 명, %)

구 분	주민화합에 대한 기여도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여도
매우 기여하고 있음	44(17.0)	124(22.6)
대체로 기여하고 있음	134(51.7)	261(47.5)
보통임	69(26.6)	142(25.9)
대체로 기여하지 않음	9(3.5)	14(2.6)
전혀 기여하지 않음	3(1.2)	8(1.5)
합 계	259(100.0)	549(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 주: 주민화합에 대한 기여도는 안동 거주자만을,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여도는 전체 관광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운영, 탈춤·인삼·송이축제상품, 고택스테이, 서원스테이, 템플스테이, 현장학습, 민속놀이체험전, 동호인대항 전국단위 이벤트 유치에 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치를 위해 영어매체(아리랑TV, 외국인전용 사이트 및 코리아포스트지 등)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해외 13개국을 방문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11). 이러한 홍보시스템에 대한 축제참가자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호함’의 비율이 40.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보통’(37.1%), ‘매우 양호함’(15.9%)의 순이다. 반면에 ‘대체로 양호하지 않음’과 ‘전혀 양호하지 않음’의 비율이 각각 5.3%와 0.5%로 홍보시스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듯,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의 홍보와 이미지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서도 ‘매우 기여함’과 ‘대체로 기여함’은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46.4%와 35.7%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2.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겨우 3.6%정도에 지나지 않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 홍보와 이미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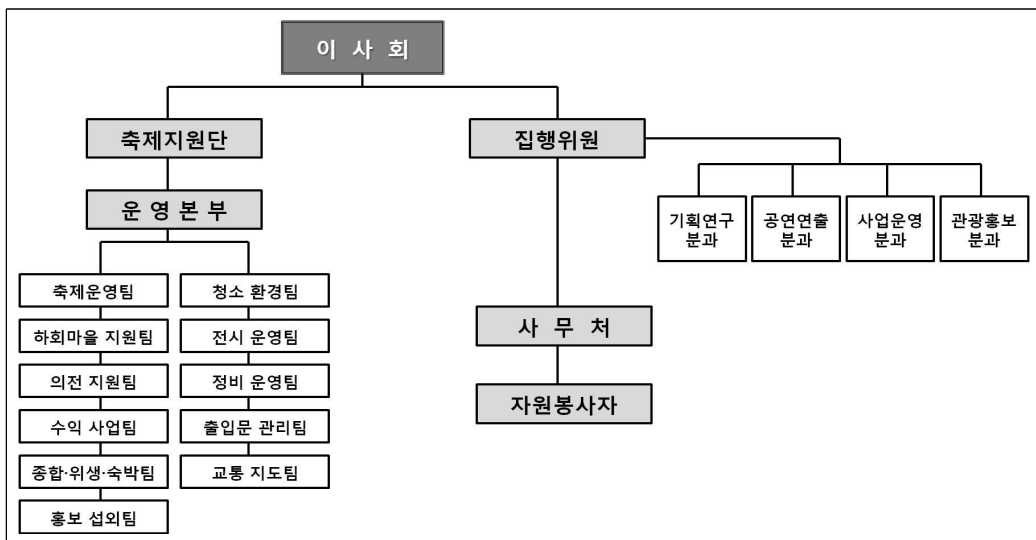
이상으로 지역축제의 의의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 성공적인 축제라고 하겠다.

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성

본 절에서는 먼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 평가에 앞서 거버넌스 구조와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주요한 추진 주체는 지방정부와 축제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상공인 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들 주체 간 네트워크의 결절(node) 역할을 수행하는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이다. 이들 주체 중 지방정부인 안동시는 과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핵심주체에서 현재는 축제의 주최기관이지만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축제기간 동안의 인력지원 등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축제전문가는 조직위원회,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안동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양성된 전문가들로, 대부분 조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축제의 기획, 운영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안동라이온스클럽을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기획과 평가, 특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국내외 공연단에 대한 서포터즈로서 축



* 주: 안동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2011)를 참고로 필자 재작성

그림 1. 2011년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구성 조직

제 진행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축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¹⁾. 또한 지역상공인단체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홍보활동 등의 후원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축제운영연구회원은 축제진행에 있어서의 도움이 역할 외에 평가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추진주체 상호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매개조직인 동시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주관기관은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이다. 조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축제지원단과 집행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축제지원단은 축제운영팀을 비롯한 11개 팀으로 구성되고, 집행위원회는 사무국과 기획연출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무처 산하에는 자원봉사자가 소속되어 있다(그림 1).

2011년 현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매개기관으로 각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이들 주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보면, 네트워크의 결절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와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는 축제의 기획, 운영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축제전문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이다. 물론 지역상공인단체와 자원봉사자도 축제의 집행과 홍보를 중심으

로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타 주체들과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주관기관으로서 모든 주체들 간의 갈등관리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위원회를 매개로한 공식적 네트워크 외에 각 주체 상호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현재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 구조는 그동안 몇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구축되었다(그림 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처음으로 개최된 1997년에는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는 추진위원회이었다. 그러나 축제의 기획은 축제전문기획사가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을 담당하였다(문태현, 2005, 409). 그러나 1998년부터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안동시민에 의한 축제”로 성격을 규정하고, 기존의 지역 명망가 대신에 지역의 축제전문가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개편하고 추진위원회가 축제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산하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남치호, 2002, 206). 그 이후 추진위원회의 조직구성이 변화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안동시 문화관광과가 중심이 되어 축제를 진행하는 지방정부 중심의 수직적 관리형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재)안동국제탈춤축제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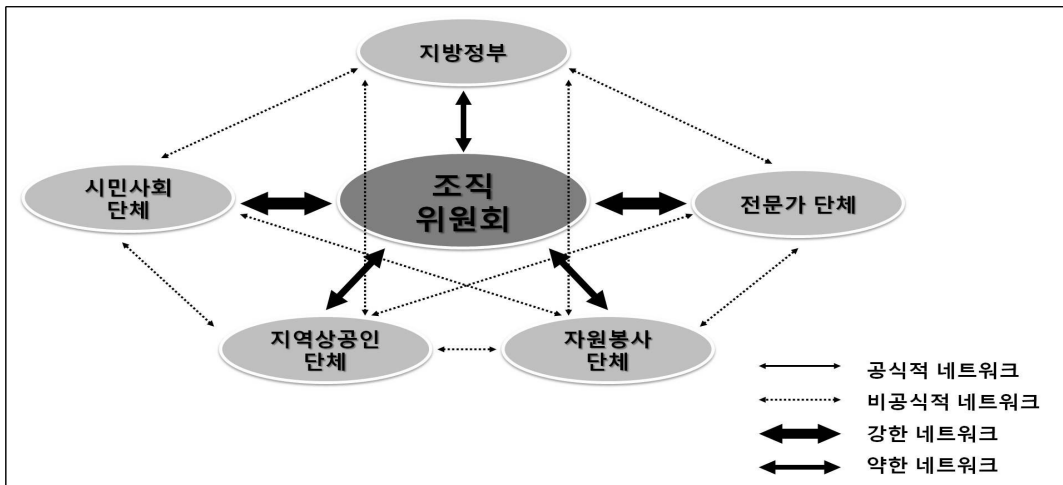


그림 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주체 간 네트워크

표 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변천과정

거버넌스 유형	특 성	거버넌스 체계
관중심의 수직적 관리형 (1997~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시 문화관광과가 중심이 되어 축제를 진행. - 사무국은 확대 및 개편되었으나, 실질적 업무는 안동시가 담당 	
민·관 협력형 (2006~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전문가단체 등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재단법인 『안동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으로 인한 민관협력형거버넌스의 기반 마련. -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조직위원회를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 예산의 실행 및 운영에 있어 안동시에서 상당 부분 관여. 	

* 자료: 추진 주체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필자 작성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있어서는 안동시가 상당부분 관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들이 서포터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로 진화할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0년부터 민간주도의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주체간의 수평적인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 구조가 정착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 평가

거버넌스 평가의 구성요소는 사회적 정당성,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의 4가지이다(강인재 등, 2005; 이경민·이철우, 2007). 이 구성요소들은 정책이나 사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구성요소별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주체별 교차평가에 기초하여 거버넌스를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 구성주체의 설문조사 대상자(85명) 중에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의사결정체계 및 과정이 매우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48.8%를 차지한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6.7%이다. 주체별로는 축제조직위원회와 공무원의 83.3%, 70.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축제전문가와 지역상공인 단체, 시민단체의 약 40~5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28.5%)이 가장 높은 주체는 자원 봉사자이다(표 4).

1)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

사회적 정당성이란 거버넌스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로, 주체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인지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작용한다(이경민·이철우, 2007).

표 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매우 바람직함	바람직함	보통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계
공무원	1 (10.0)	6 (60.0)	3 (30.0)	-	-	10 (100.0)
축제전문가	1 (10.0)	3 (30.0)	5 (50.0)	1 (10.0)	-	10 (100.0)
지역상공인단체	1 (7.1)	6 (42.9)	4 (28.6)	3 (21.4)	-	14 (100.0)
시민사회단체	-	5 (50.0)	3 (30.0)	1 (10.0)	1 (10.0)	10 (100.0)
축제조직위원회	1 (8.3)	9 (75.0)	2 (16.7)	-	-	12 (100.0)
자원봉사자	-	8 (28.6)	12 (42.9)	6 (21.4)	2 (7.1)	28 (100.0)
계	4 (4.8)	37 (44.0)	29 (34.5)	11 (13.1)	3 (3.6)	84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사회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주체들의 비율은 15.5%이다. 주체별로는 축제조직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주체들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에 축제전문가, 지역상공인 단체, 자원봉사자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자원봉사자와 지역상공인단체의 경우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비율이 각각 28.5%와 21.4%이다.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사회적 정당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3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련 주체에 대한 참여 보장(26.4%), 주체의 사회적 인지도 확보, 주체의 전문성 확보 및 민주적 의견수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거버넌스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주체는 축제조직위원회(57.7%)이며, 그 다음으로 축제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각각 11.5%),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그리고 지역상공인단체의 순이다. 특히 주체 간 교차평가에 있어서는 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모든 주체들의 절반 이상이 가장 적극적인 주체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상공인단체의 경우는 80%이상인 축제조직위원회를 가장 적극적인 주체로 평가하였으며, 축제조직위원회도 스스로가 가장 적극적인 주체로 평가한 비율도 75%를 차지하고 있다(표 6). 즉 축제조직위원회는 자타가 인정하는 거버넌스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주체라고 하겠다.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사회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주체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비

표 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 주체의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매우 확보하고 있음	대체로 확보하고 있음	보통임	대체로 확보하지 못함	전혀 확보하지 못함	계
공무원	-	6 (60.0)	4 (40.0)	-	-	10 (100.0)
축제전문가	1 (10.0)	3 (30.0)	5 (50.0)	1 (10.0)	-	10 (100.0)
지역상공인단체	1 (7.1)	7 (50.0)	3 (21.4)	2 (14.3)	1 (7.1)	14 (100.0)
시민사회단체	3 (30.0)	5 (50.0)	1 (10.0)	1 (10.0)	-	10 (100.0)
축제조직위원회	4 (33.3)	7 (58.3)	1 (8.3)	-	-	12 (100.0)
자원봉사자	1 (3.6)	10 (35.7)	9 (32.1)	6 (21.4)	2 (7.1)	28 (100.0)
계	10 (11.9)	38 (45.2)	23 (27.4)	10 (11.9)	3 (3.6)	84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표 6. 거버넌스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에 적극적인 주체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공무원 혹은 지방정부 (안동시)	축제전문가	지역상공인 단체	시민사회 단체	축제조직 위원회	자원봉사자	계
공무원	1 (12.5)	1 (12.5)	-	-	6 (75.0)	-	8 (100.0)
축제전문가	-	4 (40.0)	1 (10.0)	-	5 (50.0)	-	10 (100.0)
지역상공인단체	1 (9.1)	-	1 (9.1)	-	9 (81.8)	-	11 (100.0)
시민사회단체	-	-	-	3 (30.0)	7 (70.0)	-	10 (100.0)
축제조직위원회	1 (8.3)	2 (16.7)	-	-	9 (75.0)	-	12 (100.0)
자원봉사자	3 (11.1)	2 (7.4)	1 (3.7)	3 (11.1)	9 (33.3)	9 (33.3)	27 (100.0)
계	6 (7.7)	9 (11.5)	3 (3.8)	6 (7.7)	45 (57.7)	9 (11.5)	78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율이 3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개방적인 태도로 관련주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28.0%)이다. 반면에 ‘전문성, 인지도, 도덕성이 높은 인사들을 주체로 교체해야 한다’는 비율은 16.0%로 가장 낮다(표 7).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사회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체들의 교체보다는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협력적 파트너십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2) 신뢰성에 대한 평가

신뢰성은 정서적인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Ciancutti and Steding, 2000).

정서적 신뢰성은 관련 주체들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동일체 의식을 의미하고, 인지적 신뢰성은 주체들의 갈등관리능력, 사회적 평판이나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통해 파악된다. 또한 신뢰성은 ‘사람에 대한 신뢰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성’로 구분되며, ‘사람에 대한 신뢰성’은 다시 ‘능력에 대한 신뢰성’과 ‘의도에 대한 신뢰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용학·손재석, 1998).

먼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19.7%의 응답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체별로는 축제조직위원회의 91.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공무원, 축제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약 절반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상공인 단체와 자원봉사

표 7. 주체별 사회적 정당성 강화 방안

(단위: 명, %)

구 분	관련주체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	전문성, 인지도, 도덕성이 높은 인사들을 주체로 교체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강화	개방적인 태도로 관련주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	기타	계
공무원	3 (50.0)	1 (16.7)	2 (33.3)	-	-	6 (100.0)
축제전문가	4 (44.4)	-	2 (22.2)	1 (11.1)	2 (22.2)	9 (100.0)
지역상공인단체	2 (18.2)	1 (9.1)	4 (36.4)	3 (27.3)	1 (9.1)	11 (100.0)
시민사회단체	4 (40.0)	3 (30.0)	-	3 (30.0)	-	10 (100.0)
축제조직위원회	4 (33.3)	1 (8.3)	2 (16.7)	5 (41.7)	-	12 (100.0)
자원봉사자	6 (22.2)	6 (22.2)	5 (18.5)	9 (33.3)	1 (3.7)	27 (100.0)
계	23 (30.7)	12 (16.0)	15 (20.0)	21 (28.0)	4 (5.3)	75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표 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 주체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매우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보통임	대체로 아님	전혀 아님	계
공무원	-	5 (55.6)	3 (33.3)	1 (11.1)	-	9 (100.0)
축제전문가	1 (11.1)	4 (44.4)	3 (33.3)	-	1 (11.1)	9 (100.0)
지역상공인단체	1 (7.7)	3 (23.1)	6 (46.2)	3 (23.1)	-	13 (100.0)
시민사회단체	-	5 (50.0)	2 (20.0)	2 (20.0)	1 (10.0)	10 (100.0)
축제조직위원회	1 (8.3)	10 (83.3)	1 (8.3)	-	-	12 (100.0)
자원봉사자	-	10 (35.7)	10 (35.7)	6 (21.4)	2 (7.1)	28 (100.0)
계	3 (3.7)	37 (45.7)	25 (30.9)	12 (14.8)	4 (4.9)	81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자의 긍정적인 평가비율은 30%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경우는 긍정적 평가비율은 낮지 않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아 이중적 성격이 나타났다. 이는 관련 시민사

회단체들의 성격이 상이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표 8).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신뢰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를 대상으로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형에

표 9.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주체별 신뢰유형 평가

(단위: 명, %)

구 분	정서적 신뢰	인지적 신뢰	주체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의도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계
공무원	-	-	4 (80.0)	-	1 (20.0)	5 (100.0)
축제전문가	1 (12.5)	2 (25.0)	3 (37.5)	2 (25.0)	-	8 (100.0)
지역상공인단체	4 (44.4)	1 (11.1)	3 (33.3)	1 (11.1)	-	9 (100.0)
시민사회단체	1 (14.3)	2 (28.6)	2 (28.6)	-	2 (28.6)	7 (100.0)
축제조직위원회	3 (18.8)	3 (18.8)	3 (18.8)	5 (31.3)	2 (12.5)	16 (100.0)
자원봉사자	6 (40.0)	-	4 (26.7)	2 (13.3)	3 (20.0)	15 (100.0)
계	15 (25.0)	8 (13.3)	19 (31.7)	10 (16.7)	8 (13.3)	60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중복응답 포함)

표 10. 거버넌스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주체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공무원 혹은 지방정부 (안동시)	축제 전문가	지역 상공인단체	시민사회 단체	축제조직 위원회	자원 봉사자	계
공무원	-	3 (37.5)	-	1 (12.5)	4 (50.0)	-	8 (100.0)
축제전문가	-	3 (30.0)	-	-	7 (70.0)	-	10 (100.0)
지역상공인단체	2 (18.2)	2 (18.2)	1 (9.1)	1 (9.1)	5 (45.5)	-	11 (100.0)
시민사회단체	3 (37.5)	-	-	3 (37.5)	2 (25.0)	-	8 (100.0)
축제조직위원회	2 (16.7)	1 (8.3)	-	-	8 (66.7)	1 (8.3)	12 (100.0)
자원봉사자	3 (11.1)	2 (7.4)	2 (7.4)	3 (11.1)	12 (44.4)	5 (18.5)	27 (100.0)
계	10 (13.2)	11 (14.5)	3 (3.9)	8 (10.5)	38 (50.0)	6 (7.9)	76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주체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비율이 3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신뢰(25.0%), 의도에 대한 신뢰(16.7%) 그리고 인지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 주체들은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 주체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에 갈등관리 능력, 사회적 평판 등의 인지적 신뢰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거버넌스의 신뢰성 제고에 있어서의 주체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가장 기여한 주체는 축제조직위원회(50.0%)이며, 지역상공인단체(3.9%)와 자원봉사자(7.9%)를 제외한 3개 주체는 10% 정도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차평가에 있어서는 축제조직위원회를 시민사회단체(25.0%)를 제외한 모든 주체들의 40% 이상이 가장 기여한 주체로 평가하였다. 특히 축제전문가의 경우는 70%가 가장 기여한 주체로 축제조직위원회를 평가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자체를 가장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주체로 평가하였다(표 10).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서적 신뢰 강화의 비율이 3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능력에 대한 신뢰 강화(29.5%)이다. 그러나 의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2.6%에 지나지 않는다(표 11). 결과적으로 능력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 신뢰 등 평가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신뢰성을 제

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체들의 능력이나 주체 간 정서적 신뢰뿐만 아니라 주체들의 갈등관리 능력, 사회적 평판 등에 대한 인지적 신뢰성과 주체들의 역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신뢰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신뢰성은 단기간의 만남과 단선적 관계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주체 상호간의 경험의 공유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뢰성은 관련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줄여주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열쇠이기도 하다.

3)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전문성은 특정문제에 대한 전문적 소양으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안을 제시하며,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기술(이경민·이철우, 2007)로 정의된다. 특히 추진주체의 전문성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성과 사회적 정당성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 주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3%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주체들의 비율은 단 7.4%에 지나지 않는다. 주체별로는 관련 주체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주체는 시민사회단체로 그 비율이 77.8%이며, 특히 매우 전문성을 가진다고 평가한

표 11. 주체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단위: 명, %)

구 분	정서적 신뢰 강화	인지적 신뢰 강화	능력에 대한 신뢰 강화	의도에 대한 신뢰 강화	제도에 대한 신뢰 강화	계
공무원	3 (50.0)	1 (16.7)	1 (16.7)	1 (16.7)	-	6 (100.0)
축제전문가	3 (33.3)	1 (11.1)	4 (44.4)	-	1 (11.1)	9 (100.0)
지역상공인단체	9 (69.2)	1 (7.7)	3 (23.1)	-	-	13 (100.0)
시민사회단체	3 (30.0)	1 (10.0)	3 (30.0)	1 (10.0)	2 (20.0)	10 (100.0)
축제조직위원회	5 (41.7)	-	5 (41.7)	-	2 (16.7)	12 (100.0)
자원봉사자	8 (28.6)	5 (17.9)	7 (25.0)	-	8 (28.6)	28 (100.0)
계	31 (39.7)	9 (11.5)	23 (29.5)	2 (2.6)	13 (16.7)	78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표 1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 주체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매우 전문성을 가짐	대체로 전문성을 가짐	보통임	대체로 전문성을 갖지 못함	전혀 전문성을 갖지 못함	계
공무원	-	5 (55.6)	4 (44.4)	-	-	9 (100.0)
축제전문가	-	6 (60.0)	4 (40.0)	-	-	10 (100.0)
지역상공인단체	2 (15.4)	4 (30.8)	5 (38.5)	2 (15.4)	-	13 (100.0)
시민사회단체	2 (22.2)	5 (55.6)	2 (22.2)	-	-	9 (100.0)
축제조직위원회	1 (8.3)	6 (50.0)	4 (33.3)	-	1 (8.3)	12 (100.0)
자원봉사자	-	13 (46.4)	12 (42.9)	3 (10.7)	-	28 (100.0)
전체	5 (6.2)	39 (48.1)	31 (38.3)	5 (6.2)	1 (1.2)	81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비율이 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축제전문가(60.0%), 축제조직위원회(58.3%), 공무원(55.6%)의 비율은 평균 이상이며, 지역상공인 단체와 자원봉사자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성에 비해 각 주체별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 주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비율이 3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능력(32.3%), 업무의 지속성 확보(21.5%)이며,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이유는 중재 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이었다. 즉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 주체들은 탈춤이나 축제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축제기획과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주체의 구성원들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축제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전문성에 대한 교차평가를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주체들의 50% 이상이 축제조직위원회를 가장 전문성을 가지는 주체로 평가하였다. 특히 축제조직위원회는 스스로가 가장 전문성을 가지는 주체로 평가한 비율이 무려 91.7%를 차지하며, 축제전문가들도 스스로가 가장 전문성을 가지는 주체로 평가한 비율이 50.0%에 달하고 있다(표 13).

마지막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 주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적 소양과 갈등중재 위한 전문가 보완’과 ‘축제전

표 13. 거버넌스 주체의 전문성에 대한 주체 간 교차평가

(단위: 명, %)

구 분	공무원 혹은 지방정부 (안동시)	축제 전문가	지역 상공인단체	시민사회 단체	축제조직 위원회	자원 봉사자	계
공무원	-	3 (33.3)	-	-	6 (66.7)	-	9 (100.0)
축제전문가	-	5 (50.0)	-	-	5 (50.0)	-	10 (100.0)
지역상공인단체	1 (8.3)	3 (25.0)	1 (8.3)	-	6 (50.0)	-	12 (100.0)
시민사회단체	-	5 (50.0)	-	2 (20.0)	3 (30.0)	-	10 (100.0)
축제조직위원회	-	-	-	-	11 (91.7)	1 (8.3)	12 (100.0)
자원봉사자	2 (7.1)	6 (21.4)	1 (3.6)	5 (17.9)	11 (39.3)	3 (10.7)	28 (100.0)
계	3 (3.7)	22 (27.2)	2 (2.5)	7 (8.6)	42 (51.9)	4 (4.9)	81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표 14. 주체별 전문성 확보 방안

(단위: 명, %)

구 분	전문적 소양과 갈등중재를 위한 전문가 보완	축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장기간의 임기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기타	계
공무원	4 (50.0)	2 (25.0)	1 (12.5)	1 (12.5)	-	8 (100.0)
축제전문가	2 (22.2)	-	4 (44.4)	3 (33.3)	-	9 (100.0)
지역상공인단체	4 (33.3)	3 (25.0)	-	3 (25.0)	2 (16.7)	12 (100.0)
시민사회단체	1 (11.1)	7 (77.8)	-	1 (11.1)	-	9 (100.0)
축제조직위원회	3 (25.0)	1 (8.3)	5 (41.7)	2 (16.7)	1 (8.3)	12 (100.0)
자원봉사자	6 (23.1)	7 (26.9)	4 (15.4)	9 (34.6)	-	26 (100.0)
계	20 (26.3)	20 (26.3)	14 (18.4)	19 (25.0)	3 (3.9)	76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각각 2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제도적 장치마련'(25.0%)과 '장기간의 임기보장'(18.4%)이다. 그리고 주체별 특징으로는 시민단체의 경우 '축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의 비율(77.8%)이 타 주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과 축제전문가와 축제조직위원회의 경우 타 주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장기간의 임기보장'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거버넌스 주체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주체별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적 소양과 갈등중재 위한 전문가 보완뿐만 아니라 주체별 맞춤형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투명성에 대한 평가

사업 및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은 거버넌스 주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가치의 하나이다(Birkinshaw, 1997). 특히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지원 예산이나 자금관리 등에 대한 감독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명성은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주체간의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자(36.6%)와 부정적 응답자(31.7%)의 비율이 비슷하다. 주체별로 보면 자원봉사자의 경우 '전혀 투명하지 않음'(14.3%)을 포함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3.6%이고, 축

표 15. 거버넌스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매우 투명함	대체로 투명함	보통임	대체로 투명하지 않음	전혀 투명하지 않음	계
공무원	1 (11.1)	3 (33.3)	4 (44.4)	1 (11.1)	-	9 (100.0)
축제전문가	-	1 (10.0)	6 (60.0)	1 (10.0)	2 (20.0)	10 (100.0)
지역상공인단체	2 (15.4)	3 (23.1)	5 (38.5)	1 (7.7)	2 (15.4)	13 (100.0)
시민사회단체	2 (20.0)	3 (30.0)	3 (30.0)	1 (10.0)	1 (10.0)	10 (100.0)
축제조직위원회	2 (16.7)	7 (58.3)	1 (8.3)	1 (8.3)	1 (8.3)	12 (100.0)
자원봉사자	1 (3.6)	5 (17.9)	7 (25.0)	11 (39.3)	4 (14.3)	28 (100.0)
계	8 (9.8)	22 (26.8)	26 (31.7)	16 (19.5)	10 (12.2)	82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표 16. 거버넌스의 투명성 제고에 적극적인 주체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공무원	축제 전문가	지역 상공인단체	시민사회 단체	축제조직 위원회	자원 봉사자	계
공무원	1 (11.1)	-	-	1 (11.1)	7 (77.8)	-	9 (100.0)
축제전문가	-	4 (44.4)	-	-	5 (55.6)	-	9 (100.0)
지역상공인단체	1 (9.1)	2 (18.2)	1 (9.1)	2 (18.2)	4 (36.4)	1 (9.1)	11 (100.0)
시민사회단체	3 (30.0)	-	-	3 (30.0)	4 (40.0)	-	10 (100.0)
축제조직위원회	3 (25.0)	-	-	1 (8.3)	7 (58.3)	1 (8.3)	12 (100.0)
자원봉사자	2 (7.1)	4 (14.3)	2 (7.1)	7 (25.0)	6 (21.4)	7 (25.0)	28 (100.0)
계	10 (12.7)	10 (12.7)	3 (3.8)	14 (17.7)	33 (41.8)	9 (11.4)	79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제전문가도 30.0%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축제전문가의 경우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비율이 20.0%로 주체들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실질적인 집행주체라고 할 수 있는 축제조직위원회의 75.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조적이다. 그 외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체로는 시민사회단체(50.0%)와 공무원(44.4%)을 들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투명성의 경우는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과는 달리 부정적인 평가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체 간의 편차도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표 19).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투명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30명의 경우, 그 이유로는 참여와 의사전달 투명성 확보의 비율(40.5%)이 가장 높고, 이어 정보 공개 보장(21.4%), 정보 공유 보장(16.7%)이다. 반면에 투명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26명의 경우는 참여와 의사전달의 투명성의 미비(29.8%), 정보 공유 미비(24.6%), 정보공개 미비(19.3%)를 그 이유로 지적하였다. 즉 거버넌스의 투명성에 대한 긍·부정적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서로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타 요소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평가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주체로는 응답자의 41.8%

가 축제조직위원회를 들고 있으며, 그 다음은 시민사회단체(17.7%)이다. 반면에 지역상공인단체는 3.8%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표 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명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긍·부정적 평가이유에 있어서도 상반된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 주체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36.0%)와 관련주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기획·집행에 관한 정보공개(29.3%), 주체 간 정보공유 및 정보공개(20.0%)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감독 보장(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체별로는 공무원의 경우는 관련 주체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87.5%)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동안 투명성 제고에 가장 적극적인 주체로 평가받고 있는 축제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 주체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일반인에 대한 기획·집행에 관한 정보 공개(각각 36.4%)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투명성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경향이 강한 자원봉사자와 축제전문가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대한 기획·집행에 관한 정보공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결과적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축제의 기획과 집행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주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함으로

표 17. 주체별 투명성 제고 방안

(단위: 명, %)

구 분	주체들의 참여의 기회확대	주체 간 정보공유 및 정보공개	관련 주체들의 감독 보장	일반인에게도 기획·집행 정보 공개	기타	계
공무원	7 (87.5)	1 (12.5)	-	-	-	8 (100.0)
축제전문가	2 (22.2)	2 (22.2)	2 (22.2)	3 (33.3)	-	9 (100.0)
지역상공인단체	6 (46.2)	3 (23.1)	-	3 (23.1)	1 (7.7)	13 (100.0)
시민사회단체	4 (50.0)	-	2 (25.0)	2 (25.0)	-	8 (100.0)
축제조직위원회	4 (36.4)	1 (9.1)	1 (9.1)	4 (36.4)	1 (9.1)	11 (100.0)
자원봉사자	4 (15.4)	8 (30.8)	4 (15.4)	10 (38.5)	-	26 (100.0)
계	27 (36.0)	15 (20.0)	9 (12.0)	22 (29.3)	2 (2.7)	75 (100.0)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써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축제조직위원회 등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와 자원봉사자와 지역상공인 단체와 같은 그렇지 않은 주체 간의 평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사례로 최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지역축제의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평가에서는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의 관점에서 거버넌스 주체 상호간의 교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주체로 안동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199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세계 30여 개국의 문화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역축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축제 주체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구축이라는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2011년 현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상공인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각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개

방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이다. 특히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결절의 역할을 수행하는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는 축제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상대적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주체 상호간에도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결과, 투명성(36.3%)을 제외하고는 절반 혹은 그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은 매우 높았다. 거버넌스 구성요소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비율이 높은 주체는 축제조직위원회,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공무원이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비율이 높은 상공인단체와 자원봉사자이다. 즉 지역축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거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주체일수록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그리고 구성요소별 긍정적 평가의 이유는, 사회적 정당성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주체의 참여 보장, 신뢰성에 있어서는 주체의 능력과 인지 및 제도적 신뢰이었다. 또한 전문성의 경우는 전문지식, 대안제시 능력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이었고, 마지막으로 투명성에 있어서는 참여와 의사전달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및 공유 보장이 주된 이유이었다. 특히 투명성의 경우에는 타 요소에 비해 긍정적 평가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긍·부정적 평가 이유도 주체별로 아주 상반적이었다. 이와 같이 안동국제탈

춤페스티벌 거버넌스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전 요소에 걸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한 주체는 축제조직위원회이다. 그러나 축제조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요소별로 공헌한 주체가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지역상공인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성, 축제전문가는 전문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관련 주체의 전문성을 살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시너지효과의 극대화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축제의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 혹은 상대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주체뿐만 아니라 지역상공인 단체와 자원봉사자 등 집행과 같은 특정 분야에 주로 참여하는 주체들도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장(field)을 마련함으로써 주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타 요소에 비해 부정적 평가 경향이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긍·부정적 평가이유도 아주 상반적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의 강화 이외에 일반인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결과 외에 각 주체들에 대한 심층면담조사에 의한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

- 1) 예를 들면, YMCA는 인영극장을 운영하며, 안동문화원은 안동민속제를, 하회마을보존회는 하회전통마당행사를, 그리고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는 탈춤 공연 및 지도를 주관하고 있다. 그 외 안동자활센터는 축제장의 화장실 청소, 안동시 해병대 전우회는 경비와 주차장 관리를 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헌

가톨릭상지전문대학 지역사회개발연구소, 199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97 평가보고서, 안동탈춤페

스티벌 조직위원회.

- 강인재·신기현·이철우·최진혁, 2005,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 대영문화사, 서울.
- 강형기, 1999, 지역축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명확한 축제테마·주민참여·지방문화 함께 이뤄져야, 지방행정, 48(552), 29-36.
- 권정주·김동호·황희연, 2011, 청주 원흥이생태공원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의사결정 영향력 변화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9(1), 65-74.
- 김영·서익진·이필용, 2008a, 마산시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의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4), 89-110.
- 김영·이필용·김남룡·정규식, 2008b,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1(3), 87-108.
- 김용학·손재석, 1998,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계간 사상, 38, 115-132.
- 김정렬, 1999, 거버넌스의 구현과 정부간 관계의 미래-지방중심 경제발전모형의 탐색, 1999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97-513.
- 김창환·신영근·정성훈, 2006, 지역축제의 지방화: 춘천마임축제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31-43.
- 김홍수, 2007, 축제와 문화거버넌스, KSi한국학술정보(주).
- 남치호, 2002, 안동시 축제구도의 재정립과 축제 도시화 방안, 안동개발연구, 13, 5-25.
- 도경록·송재일·한상현, 2011, 지역관광 거버넌스의 평가와 개선방안-경북관광포럼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3(1), 213-235.
- 문태현, 2005,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정책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분석-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2), 337-358.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전국시도별 문화관광축제 현황(<http://www.mct.go.kr/web/cultureInfoCourt/localFestival/searchList.jsp>)
- 민보경, 2005,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분당-죽전 도로 연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2), 25-44.
- 박종일, 2010, 지역문화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및 참여 주체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

- 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현식·김창수, 2011,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이 축제 매력성과 방문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6(3), 225-244.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3 평가보고서*, 안동탈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안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4 평가보고서*, 안동탈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1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1 평가보고서*, 안동탈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안혜원·류상일, 2008,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충북지역 축제 및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19(2), 27-45.
- 여영숙, 2009,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으로서 생태관광의 전망-순천만 갈대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3(4), 384-401.
- 오순환, 1999, 지역축제의 실제와 경제적 효과 -이천 도자기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3), 202-221.
- 유정우, 2008, 지속가능 관광개발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와 관광거버넌스 간의 구조관계 연구, *관광학 연구*, 32(3), 37-60.
- 이경모·강해상, 2003, 국내·외 지역축제 사례에 관한 비교연구-수익성과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관광경영학연구*, 7(1), 129-147.
- 이경민·이철우, 2007,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09-525.
- 이병수·김일태, 2001, 지방정부와 NGO간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 조건에 관한 연구-의정부시 공무원과 NGO활동가들의 인식, 태도,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4(2), 27-41.
- 이수범·전유정, 2010, 지역축제에서 음식판매장 선택속성이 음식판매장 및 축제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4(1), 35-49.
- 이연호, 2010, 지속가능발전정책 거버넌스 평가, *동서연구*, 22(1), 7-45.
- 이용연·염일열, 2002,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8, 201-219.
- 이장주·강경훈, 2003, 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함평 나비축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3(2), 161-188.
- 이장주·박석희, 1999,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진도 영등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3), 243-261
- 장병수·구정대, 2004, 지역축제 참가자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밀양문화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6(1), 19-37.
- 장순희, 2000,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산업과학기술연구 논문집*, 7(1), 75-89.
- 정강환, 1996,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11(3), 30-59.
- 정정길, 2003,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서울.
- 조안나, 2010, 지역 축제 장소마케팅 전략에서 나타난 로컬 거버넌스 조직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미숙, 2008,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지자체 공무원·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토*, 332, 120-129.
- 함석중·박선희, 2009,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동해 수평선 축제를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23(1), 191-206.
- 황윤용, 2005, 지역축제의 장소마케팅노력에 대한 장소브랜드 관계결속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9(2), 255-276.
- Birkinshaw, J.M., 1997, Entrepreneurship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subsidiary initiativ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3), 207-229.
- Ciancutti, A. and Steding, T., 2000, Trust Fund, *Business 2.0*, 105-112.
- Johansson, H. and Bjork, P., 2001, *Multi-Level Governance for Improved Public Services in Sweden: The actor-dimension of co-ordination*, *Multi-Level Governance: Inter-desiplinary Perspective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Rhodes, R.A.W.,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Stoker, G., 1998,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Urban Governance*, Jon Pierre, ed., *Partnership in Urban Governance: European and American experience*, St. Martin's Press, New York.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cwlee@knu.ac.kr, 전화: 053-950-5234)

Correspondence : Lee, Chul Woo, Dept. of Geography, Social Science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cwlee@knu.ac.kr, phone: +82-53-950-5234)

• 교신 : 이철우, 702-2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접수: 2012.4.12, 수정: 2012.5.8, 채택: 2012.5.26)